



그림: 《복으로 가득찬 남강》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계절 이야기

하늘이 내린 홍복

명혜 정기 간행물



- 아기 탈출기
- 병어리 사촌형의 특별한 인연
- 세 명의 젊은 경찰의 갇지 않은 운명

제 18기



그림: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필요하다>>

서두 일문	1	진귀한 보물
인간 기적	2	차가 날아 닢을 잃다
하늘이 내린 홍복		
	4	마을에서 제일 '센 사람' 기사회생을 체험
	8	아기 탈출기
	10	병어리 사촌형의 특별한 인연
	12	말기 혈액암 환자 생 생명을 얻다
	14	우한 이야기: 구자진언이 제수씨 가족을 구했다
	16	외조카 연탄차 추돌에 무시했다
	18	동료 온 가족 '삼퇴'하고 복받았다
해외 소식	20	파룬따파 흥전 세계
역사 회고	22	또 칠월을 만나다
심신 정화	24	약학 박사의 선택
인심 인과	26	세 명의 젊은 경찰의 같지 않은 운명
	30	두 가정의 비극과 기쁨, 세인의 마음을 일깨운다
문사 만담	32	졸정원 배후의 처절한 지난 일
진상 환원	33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2001년 1월 23일, 중공이 '천안문 분신자살'을 조작해 파룬궁에 들썩웠다. CCTV에서 방송한 화면에서는 여러 곳에 허점이 드러났고, 아래 그중 두 곳이다.

■ 타 죽었는가 맞아 죽었는가

CCTV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류춘링은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거운 물체로 머리를 때려 넘어졌다. 그림 1~4: 류춘링의 몸에 불이 꺼졌을 때, 누군가 무거운 물체로 머리를 호되게 때렸다. 무거운 물체가 튕겼고, 류춘링은 두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넘어졌다. 한 남자가 때린 위치에 서 있다.



■ 비닐병이 타도 망가지지 않다

CCTV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왕진동의 온몸이 불에 까맣게 탔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 음료 병은 불길 속에서 타지 않고 형태도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멀화 탄자를 들고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왕진동이 렌즈를 향해 구호를 외치자 탄자를 쏘았는데 분명 촬영 중이었다.



■ '분신자살 사기극' 연합국에서 폭로: 옹근 사건은 중공이 일방적으로 연출

국제교육 발전조직 (IED) 은 2001년 8월 14일 연합국회의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은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은: 녹상 분석에서 표명한 바 옹근 사건은 중공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 대표팀은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이 성명은 이미 연합국에 기록 되었다.

■ 파룬궁은 살생과 자살을 금지

파룬따파의 서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파룬궁은 불법 수련이며, 살생과 자살을 금지한다. 분신 자살자는 파룬궁 수련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졸정원 배후의 처절한 지난 일



명나라 정덕 연간 쑤저우(苏州) 장주(长洲)현 루먼(娄门) 안에 대홍사가 있었는데, 이 절은 어사 왕 헌신(王獻臣)의 집과 이웃해 있었다.

왕 헌신은 평생 신불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불문의 말을 더욱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원을 넓히기 위해 이웃한 이 큰


절을 허물기로 했다.

그는 절에 있는 보살, 천왕 등의 신상을 바닥에 끌어내리고, 칼로 조각상 얼굴의 금박을 긁어내라고 명령했다. 좌우에서 그만하라고 타일렸지만 듣지 않고 기어코 밀어붙였다. 얼마 후 신불 족자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자 스님들도 놀라 도망쳤다. 스님들이 청수하던 자리는 파괴되어 황폐됐다.

그런데 몇 달 뒤 왕 어사는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 몸이 근질근질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들고 피부를 긁었다. 살갓이 긁어 떨어져도 가려운 데다가 근육까지 긁어내더니 결국 뼈까지 긁혔다. 온몸에 뼈가 찢어지고 피가 흥건히 고여 열흘도 안 돼 그는 죽었다.

사원을 점용해 넓어진 정원을 '졸정(拙政)'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절의 옛것이었다. 당시 쑤저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

을 자랑하던 졸정원은 지금도 중국에서 4대 명원 중 하나다.

왕 헌신이 죽은 뒤에 아들 왕 석린은 큼직한 저택에 앉아 있어도 지킬 복이 없었다. 왕 석린은 도박에 빠져 서 씨네 집에 저택을 내줬다. 왕가는 결국 집안을 망치는 말로에 처했다. 

진귀한 보물

문/류이춘(刘一淳)



한 수집가는 수년간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중에는 유명작가의 작품도 적지 않았다. 어느 해 이 나라는 전쟁에 말려들었는데, 그의 유일한 아들이 군대에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집가는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 죽은 후 첫 번째 성탄절에 초인종이 울렸다. 수집가가 문을 열어보니 한 젊은이였다. 젊은이는 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마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저는 당신 아들의 전우인데 그이는 저를 구해주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가난해서 값진 물건이 없는데 당신 아들이 부친께서 예술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비록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저를 살려준 당신 아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려고 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반이주시기 바랍니다.”

수집가는 차곡차곡 포장된 소포를 열어 젊은이가 그린 초상화를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본 뒤 벽난로 앞의 명화를 떼어내고 아들의 초상화를 걸었다. 수집가는 눈물을 흘리며 젊은이에게 말했다. “애야, 이것은 가장 소중한 소장품이란단. 나에게 있어서 이전의 어떤 소장품보다도 값진 것이다!” 고 말했다.

1년 후, 이 수집가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그림은 이 해의 성탄절에 경매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경매 품은 모두가 기대했던 명가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수집가 아들의 초상화였다. 모두가 경매사에게 그 명화들을 직접 경매할 것을 요구했다. 경매사는 “이 초상화를 먼저 경매


하고 나서 계속할 것입니다.” 고 말했다.

그때 구석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일어나더니 “선생님, 10달러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저의 돈 전부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알고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죽었습니다.” 고 말했다.

경매사는 “됩니다.” 고 말했다. 사람들이 ‘본론’ 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경매사는 “다시 한번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고 말했다.

관중석의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정품은 하나도 경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났지?

경매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이 그의 모든 소장품을 갖게 될 것인데……이것이 최저 가격이라고 합니다! “관중석은 온통 시끌벅적했다.

때로는 사람들은 신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나 어떤 사람은 도리어 도를 깨닫고 행운아가 되었다. 



회원 동네를 차로 지날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2003년 2월 6일 저녁, 이곳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날은 중국의 새해 정월 초 여섯 날이었다. 어둠이 깔리고 화려한 등불이 켜질 무렵, 점쟁이 한 분을 만나려고 약속했기에 친구의 렉서스 400 승용차를 혼자 몰고 그를 데리러 갔다. 오후에 술자리에서 몇 잔 더 마셨는데 흥분한 나머지, 차에 탄 후 안전벨트 착용마저 잊었다!

그 어르신은 시 외곽의 회원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아직도 건설 중이었으며, 주변은 모두 농촌 주민들로, 새로 만든 큰길 하나만이 그곳으로 통했다. 길의 상황을 모르는 나는 차와 행인이 점점 뜰 해지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였는데 어느새 시속 100km로 올라갔다.

갑자기 눈앞의 도로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는 그 즉시 내 차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겨우 1, 2초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나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로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차창으로 사방을 둘러보고서야 나는 차가 뜻밖에도 고구마 밭에 멈춘 걸 알았다.

그때 입에서 피의 찰맛을 느낀 나는 드디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머리와 팔다리를 움직여 보니 몸은 그래도 멀쩡해 보이자 얼른 휴대전화로 나를 기다리던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지금 나와 멀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 어르신이 달려와서 120에 전화 걸어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다. 검사 결과 나는 약간의 경상을 입었을 뿐이다——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머리를 핸들에 부딪혀 입술이 터져 바로 병원에서 봉합하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낙하한 곳은 토질이 부드러워 그 렉서스 차량도 심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

줄곧 내 곁에 계시던 어르신은 저녁 내내 계속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원래 어르신이 길가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차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이어서 어르신은 평지에서 차가 날아오르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중에 그는 또 “젊은이, 자네는 큰 재난에 죽지 않았으니 반드시 훗날에 복을 받게 될것이니!”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안이고, 신희 부인은 같은 도시의 한 회사 사무직으로 수입이 많다. 생활이 부유하고 행복하여 고향의 많은 사람을 부럽게 했다.

초롱불을 켜자 어둠이 내리고 오색찬란한 불꽃놀이가 주 씨 집 상공에서 활짝 피어나며 복을 받은 기쁨을 천만가의 착한 사람과 나누고 있었다.

요 씨네 비극

주 씨 가문의 경사가 이제 막을 내린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극이 요 씨 가문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요 씨네는 작은 시내의 서쪽에 있는데 파출소와 300m도 안 된다.

시에서는 외국기업 공장을 새로 짓는데 여러 향촌 마을에서 일부 인원을 선발해 절강성에 파견해 3개월간 교육한 뒤 직장에 복귀하도록 했다. 외국 기업의 노동자를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다. 요 씨 집안의 아들 파랑도 그 중 한 명이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누가 짐작했겠는가, 겨우 20여 일 만에, 파랑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켰는데 발견할 때는 이미 늦었다. 2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 했는데 계속 의식불명이었다. 의사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위독 통보를 내려 파랑은 집에 보내졌다.

이 홍복은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남들 때문에 안타깝고, 나 자신도 걱정되었다. 6년 전 파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또 그가 이렇게 되니,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쩌면 그의 아버지와는 좀 상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파랑의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평생을 ‘편 외 일용직’으로 일하다 ‘협조

경찰’로 바뀌 불렀는데 기실 같은 것이다. 한 마디로 중공의 줄개로 나선 것이다. 무릇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기는 행위, 남을 해치는 일, 천 리를 해치는 일, 모두 그가 앞장서서 크게 싸웠다.

처음에는 인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면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도자는 만족하지 못하며: 이 꼬락서니로 정규직 전환할 생각인가? 그리하여 그는 손발을 뻗고 일하였다. 양심 없이 악랄하게 일하며 이렇게 수십 년을 했는데 이 ‘협조 경찰’이 진짜 사이버 경찰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악귀를 만난 듯이 그를 보고 잇따라 피했는데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하며 득의양양하다고 느꼈다. 특히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에서 그는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주 씨 소명의 아버지에게 뺨을 때린 적이 있으며 또 신분증을 빼앗아 한사코 주지 않는 등등이다.

공산당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중공은 정규직으로 바뀌주지 않았고 결국 문밖으로 밀어냈다. 얼마 안 되어 간암으로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응을 받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옥일승천 같던 파랑도 죽고 남은 아내와 어린 아들딸이 인생의 여정을 고달프게 보내고 있다.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옛 교훈이 중공의 수십 년 동안 거짓말 선전과 고의적인 기편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신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생한 사례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 리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일깨워주어 자기의 선량을 지키고 악을 멀리해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한다. ☸



두 가정의 비극과 기쁨 세인의 마음을 일깨운다

문/추허(楚禾)

5월의 장한 평원은 금의 자리 펴 놓은 듯 질푸르고, 새가 지저귀고, 꽃향기가 가득하다. 오래된 작은 마을에서 잇따라 인간의 기쁨과 비극을 연출했는데 예부터 변함없는 천 리를 해석하고 있다.

주 씨네 기쁨

작은 마을에서 동쪽으로 2리 나가면 바로 주 씨네 집이다. 이날은 주 씨네 집에서 아들 소명이 혼사를 치르고 신부를 맞이하는 큰 경사스러운 날이다. 주 씨네 식구들 하나하나가 얼굴에 웃음꽃이 필 뿐만 아니라 마음씨 고운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봄바람처럼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렇다, 주 씨네 과거 고난을 실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소명은 겨우 몇 살밖에 안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고, 부모님은 외지에서 일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오히려 무사했다.

소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재앙이 덮쳤는데 파룬궁을 수련하는 아버지가 북경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러 가는 도중에 납치되어 도시에서 얼마간 갇혀있다가 나중에 작은 시내 파출소로 옮겨 수감했다. 당시는 바로 여름이었는데 낮에는 그를 뜨거운 햇빛 아래서 꼼짝 못 하게 했고, 밤에는 지하의 시멘트 바닥에 버려져 모기에 물리게 했다.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자는 때로는 일어나 그의 뺨을 몇 대 때리고, 발길질을 몇 대하는 화풀이를 즐기는 것도 일상이었다. 40여 일 동안 구박하고서야 그를 풀어주었다.

생계를 위해 소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내에 가게를 열어 작은 고기만두를 팔았다. 장사를 착실하게 해서 오가는 손님이 많아 장사가 잘되었다. 그런데 며칠 안 돼 중공 경찰이 소명의 아버지를 또 납치했는데 구실이 없이 또 어떤 구실도 필요 없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7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소명의 아빠는 어쩔 수 없어 단식으로 끝없는 박해를 막으려고 시멘트 바닥에 누워 8박 8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구치소는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 가족들에게 데려가라고 알렸다. 겨우 며칠 사이에 그는 다시 살아났고 다시 그의 만두를 팔 수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미수가 다시 그에게로 향해 2년간 불법으로 로교소에 갇혔다. 독극물 독침으로 인한 박해로 2년 후에 나왔을 때 멍한 기색으로 아무 말 없이 거의 폐인에 가까웠다.

이 가족은 비록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삶의 희망이 보였다……

아들 소명은 비바람 속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순조로워 신이 도와준 듯했다. 현재, 소명은 연해 도시의 한 중앙 기업에서 일하며 연봉이 몇십만 위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집사람 보고 차로 사고 현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전날 밤 그곳이 어떤 광경이었는지 똑똑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돌아가서 직접 보고 싶고 동시에 나를 보우해 주신 신령께 감사드리고 싶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나는 이 새로 건설한 길은 아직 완공되지 않고 단지 반만 보수하고 가로등도 그것에 맞게 반만 설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가 도로 끝까지 가서 멈추자 차에서 내린 나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서 어리둥절했다——길 끝에 큰 골짜기가 있고 적어도 5~6m 깊이며 그 아래에는 혼잡한 돌들이 가득했다. 내 발밑에서부터 고구마밭까지 너비가 7m는 너럭하다! 상식적으로 어젯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차가 분명히 골짜기에 떨어져 차가 망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것인데 어떻게 고구마밭으로 날아갈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가 이런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

5m가 넘는 길이와 2m에 넘는 렉서스 400이 평지에서 날아올라 뜻밖에도 몇 미터나 되는 계곡을 날아 넘어, 마침내 평탄하게 지상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차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때 옆에 있던 집사람도 얼떨결에 정신을 차리고는 나에게 정말 하느님의 보우에 감사드려야 한다면 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라고 말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부처님 아니고…… 아니야! 내 사부님 말고 누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수 있

는가?” 갑자기 가슴이 몽클해졌는데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두 손을 가슴에 합장하고 “사부님!” 하고 외치는 순간 목이 메었다……

1998년 말에, 나는 지인의 소개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때 ‘진, 선, 인’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즐겁고 몸이 홀가분하여 늘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몇 달 뒤 1999년 7월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했다. 그런 하늘 땅을 뒤엎듯 한 공포와 압력 아래에 나는 뒷걸음질 치며 파룬궁 수련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내가 여전히 파룬궁을 믿으며 ‘진, 선, 인’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 몇 년 동안 보낸 시간을 회상해 보면, 나는 사실 매우 힘들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은 마치 뿌리가 없는 부평초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단지 나의 정신적 공간을 채우고 싶었다. 그동안 몇 번이고 밤이 깊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파룬궁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는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나약함에 사부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더는 사부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다……

눈앞의 이 신기한 교통사고는 나에게 마침내 사부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줄곧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했다!

차 사고가 있는 이후에 나는 다시 《전법륜》을 펼쳐보며 파룬파와의 수련 행렬에 들어섰다.



마을에서 제일 '센 사람' 기사회생을 체험

문/후이전(慧珍)



나는 마을에서 첫 번째로 '센 사람'이다. 내가 병으로 비실비실거리지만, 다투고 싸우는 데는 적수가 없으며 '마을의 강패'도 나만 보면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황포해도 결국은 사람이므로 병마 앞에서 나는 마흔도 안 돼 철저히 패배하였다. 내가 마비로 구들에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게 나의 운명에 '복'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질병에 시달리다가 재산을 날리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사다난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첫돌도 안 되어서부터 경련을 일으켰는데 의사는 '소아 간질' 병이라고 했다. 매번 병이 발작할 때마다 매우 심하게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곡초 한 묶음을 방 안에 준비해 놓고 내가 숨을 거둘 때 곡초로 싸서 던지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만 5세에 나는 또 천식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고질이 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병이 없는 날이 없었는데 일 년 내내 약을 끊지 못해 약단지가 되어 병고에 시달리었다. 나는 내 팔자를 원망하며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늘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다.

나 이 고질 환자는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 시댁 두 가족에게도 해를 끼쳤다. 장기간 병을 치료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온 가족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 아껴 먹고 아껴 써야만 했다.

결혼할 때 마침 농가 생산량 도급제를 실행할 때였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발일할 수 없었기에 집에 있는 논 20 묘를 남편 혼자서 다루었다. 그가 바쁠 때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모두 와서 도와주었다. 농민은 땅에서 밥벌이한다. 남편은 일 년 내내 고생하여 지은 곡식을 팔아 번 고만한 돈을 모두 나의 병 치료에 썼다.

비록 나는 비실비실하지만, 유달리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나의 성격은 외향적인데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성질이다. 누

과륜궁 수련생을 보호해 주었다.

아왕이 자신의 과실을 보완하여 그의 병은 현재 이미 다 나왔다.

아위의 복운

아위의 어머니와 이런 과륜궁 수련생들이 납치된 후, 아위는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본의 아니게 어머니와 과륜궁 수련생들을 배반했다고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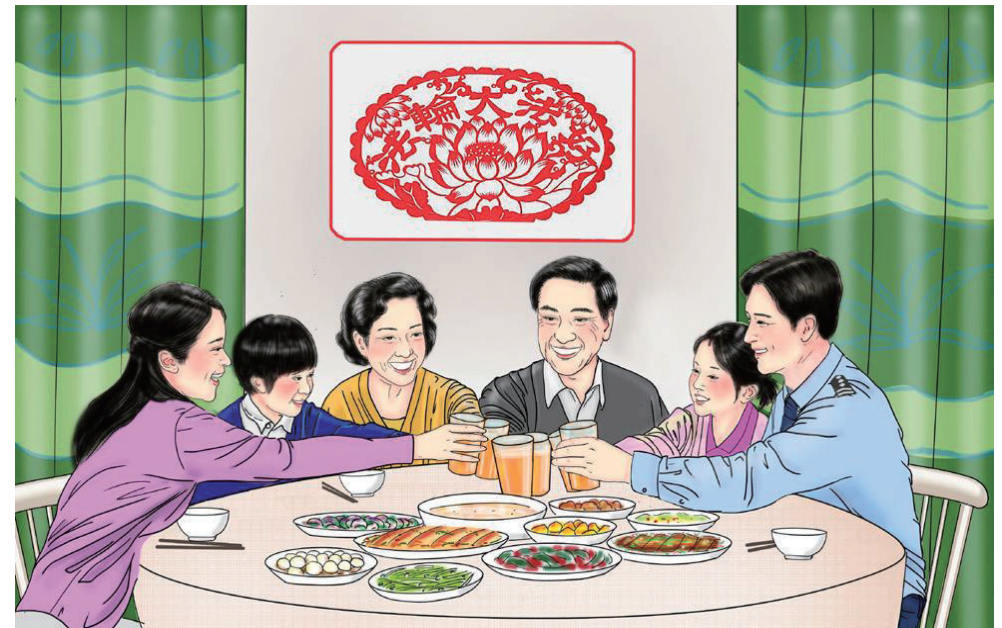
어머니와 곁에 있는 과륜궁 수련생들은 평소에 '진선인'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자비롭고 선량한 것이 아위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었다. 나중에 그는 어머니를 도와 과륜궁의 진실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은 더 일찍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택 조직에서 탈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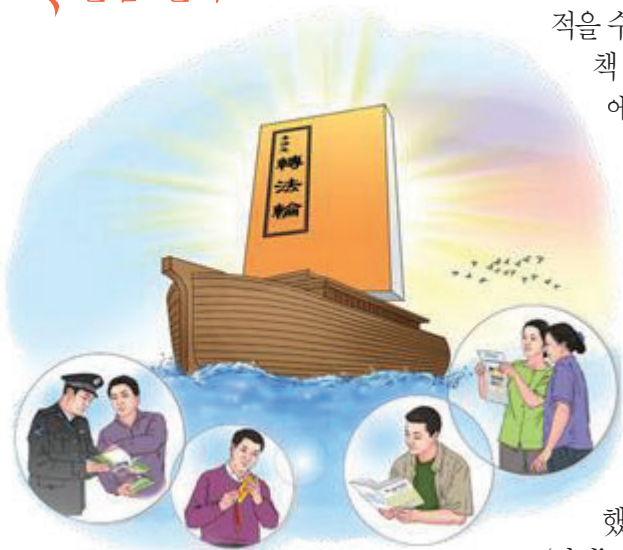
아위는 어머니와 상의해서, 경찰 동료

와 친구들을 한 명씩 집으로 데려가 어머니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도록 했다. 매번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어머니가 진실을 말하기에 편하고, 사람이 많으면 분명히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도 자신의 이해로 어머니를 도와 이야기했다. 그가 데려온 경찰들은 대부분 진실을 알고 '삼퇴'를 했다.

때로는 진실을 아는 아왕이 때마침 아위의 집에 오면 아위의 어머니를 도와 이야기했다.

아위가 과륜궁 수련생에 대한 지지로 자신에게 복을 가져와 현금 도시로 발령받아 현 공안국 부국장이 되었다. 아위의 부모님도 나중에 도시로 이사 가셨다. 해마다 설이 되어 가족이 모일 때마다 설날 그믐날 저녁 만찬에서 온 가족이 잔을 들어 축복하는 말이 있다: "과륜따과는 좋습니다!"





생을 욕하고 목욕했다.

몇 년 후, 아왕은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뇌출혈에 걸렸는데 병이 심해서 현지 치료가 잘 안 되어 가족들은 그를 북경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 치료를 받았다. 수술하고 돌아온 후 매일 고통스럽게 침대에 누워 있으며 생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아래층에 사는 파룬궁 수련생은 아왕이 병에 걸린 것을 알고서 그녀를 몇 번이고 납치한 것을 따지지 않고 위층에 올라가 아왕을 문안하며 이것은 파룬궁을 박해하여 업을 빚어 악보를 당한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에게 어서 빨리 파룬궁 서적을 보고 진실을 알고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지 않으면 그의 병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웃 아주머니는 아왕에게 《전법륜》 책을 빌려주고 싶었다. 아왕은 알아듣고 그가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가서 파룬궁 서

적을 수색할 때 다 바치지 않고 《전법륜》 책 한 권을 몰래 숨겨 놓았는데 사무실에 두었다며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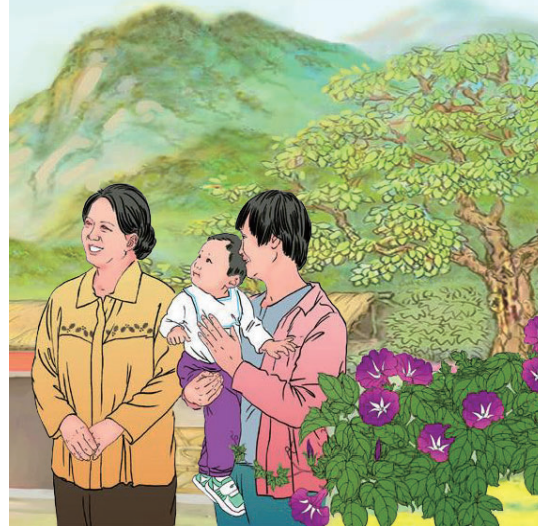
나중에 아왕은 《전법륜》 책을 한 번 보고 나서 그는 무엇이든 다 알게 되었는데 책에 쓰인 것은 중공의 말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중공에 이용당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모든 행동을 후회했는데 정말 후회막급이었다. 그는 동료 아왕의 어머니도 그에게 말했던 진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고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보기 시작했다.

이때, 아왕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그는 출근할 수 있었다. 아왕에게 박해받았던 파룬궁 수련생들도 모두 그를 원망하지 않고 그에게 끊임없이 진실을 말해주었다.

진실을 알게 된 아왕은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파출소에서 재차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여 세뇌 반에 보내어 박해하려는 사전 모의가 있었다. 아왕은 서둘러 아래층의 파룬궁 수련생과 연락하여 그녀에게 파룬궁 수련생에게 소식을 알려 재빨리 몸을 피하라고 말했다. 소식을 듣고 파룬궁 수련생은 마땅한 조치를 하여 파출소의 악행이 실현되지 못했다.

후에 아왕은 구치소로 전근되어 일했다. 구치소에서 그는 자신의 직권 범위내에서 납치되어 구치소에 온 파룬궁 수련생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줄곧 비밀리에



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남의 ‘꼬투리’를 잡고 쉽사리 그만두지 않고 애간장을 떨게 하는 성격이었다. 나는 늘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이길 때까지 싸워 나를 욕하지 않는 이웃이 없었다.

어느 해 춘 정부에 상납금을 바치는데 회계는 우리 집이 아직 50위안이 모자란다고 했다. 나는 단번에 “어제 우리는 양식을 받쳤는데 어찌 아직도 모자란단 말인가요?!”라며 얼굴을 붉혔다. 회계는 “장부에 없어요.”라고 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 이 장부를 똑똑히 계산할 때까지 누구도 계산할 수 없다!” 춘 서기는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것을 보고 친히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춘 서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웃음만 짓고 있었다. 나중에야 남편이 회계한 데 결산보고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피하였으며 ‘마을의 깡패’도 나를 만나면 먼저 인사

해야 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남이었다면 세상을 떠돌아다녀도 보충코 천하무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나도 내가 매우 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님은 나에게 좋은 몸을 주지 않았다. 젊을 때는 약으로 버티면 몸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의 병도 점점 심해져서 결국 몸져누울 지경에 이르렀다.

1997년 4월 10일 석 달 넘게 구들에 누워 있는 나는 이미 생명이 위독했다. 곧 끝날 나의 일생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실패작이었다. 내가 온종일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웠는데 누구에게 좋을까? 아직 마흔도 안 돼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구나. 휴, 이제 다 늦었네.

가족들이 나의 후사를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이때 한바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생 끝에 복이 찾아왔다

오신 분이 나의 작은어머니다. 그녀는 일부러 외지에서 서둘러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애야, 겁내지 마라, 네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테이프 몇 장을 꺼내며 “이것은 파룬궁이다.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들어주었다. 그것은 파룬궁 사부님께서 하신 지난 (济南) 설법 녹음이었다.

나는 온돌에 누워 최선을 다해 들었는데 지치면 잠시 휴식하고 깨어나면 계속 들었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하신 좋은 사람이 되는 이치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나는 어찌하여 조금 더 일찍 듣지 못했을까? 이렇게 첫

날에 듣고 나니, 나는 힘이 좀 생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다음날 작은어머니가 나에게 동작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연공은 할 수 없다고 하자 작은어머니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이라.” 고 하셨다. 나는 되도록 일어섰지만, 몇 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나는 쓰디쓴 물을 반대야나 토했다. 토하고 나니 가마를 뒤엎어 놓은 듯하던 부은 배가 사라졌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끊임없이 오줌을 싸기 시작했고, 그 뒤로 부기가 다 가라앉았다.

7 일째 되던 날, 일어나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름 사이에 나의 병이 다 나았다고 느꼈다.

20일 후, 나는 남편과 함께 밭에 가서 일할 수 있었다!

3주도 안 돼 나의 몸에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고 나의 마음은 정말 밝아졌다!

온 가족은 정말 기뻐했으며 남편은 사람만 만나면 “파룬궁은 신기한 공법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집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파룬궁은 우리 마을에서 전해졌고 선후로 수십 명이 우리 집에 와서 파룬궁을 배웠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병이 없어져 진찰받고 약 살 필요가 없었기에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돼지를 기르며 삶은 하루하루 나아지고 해가 갈수록 좋아졌다. 몇 년 후 새집을 짓고 며느리를 얻어 손자를 보았다. 최근 10년 동안 남편이 샅벌이하고, 나는 농사를 지으며, 살림살이 걱정 없이 집은 화목했다. 남편은 “당신이 연공을 하여 병원비 20만 원을 절약했어요. 나는 만족해요. 당신

이 파룬궁을 연마하였기에 비로소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오늘의 건강과 화목한 대가정이 있게 된 것은 완전히 파룬따파의 덕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원한을 풀고 남을 잘 대하다

《전법륜》을 배우고 나는 ‘진, 선, 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았다. 과거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악몽이다.

사부님께서는 “사람이 예전에 나쁜 일을 하여 생긴 업력(業力) 때문에 병이나 마난(魔難)이 조성된다.” 고 말씀하셨다.

지난날의 난폭한 기세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업을 만들었는가? 내가 병이 없을 수 있을까? 병이 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는 반드시 나의 이전의 폭언과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을에 한 오라버님을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그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는데 나와 응어리가 맺혔다. 15년 동안 그는 나를 본체만체했다. 지금 나는 주동적으로 그에게 예를 갖추고 사죄하여 그의 양해를 얻었다.

나는 집안의 한 동서하고 십여 년 동안 만나면 여태껏 인사도 하지 않거니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다툼도 자주 했다. 지금 나는 선으로 주동적으로 그녀를 찾아 말을 건넨다. 처음엔 그녀는 냉정한 얼굴을 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여전히 선으로 그녀를 대했다. 차츰 그녀도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나중에 그녀도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지금 우리 둘은 친자매보다 더 친하다. 한 이웃은 나에게 “파룬궁 덕분에 당신들 오늘이 있게 되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둔다. 아상은 영리한 사람이어서 평소에 계속 출세하려 했으나 승진할 기회가 없어 괴로웠는데 아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마음속으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아위가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말을 소장에게 보고하였고, 결국 파출소 경찰이 출동하여 그 파룬궁 수련생의 집으로 돌진했다.

공교롭게도 그 파룬궁 수련생의 집은 바로 파출소 경찰 아왕의 집 아래층이었다. 그래서 아왕이 길잡이로 이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가서 폭행하였다.

아왕은 젊고 기세가 왕성하여 맨 앞에 나섰다. 당시 파룬궁 수련생 11명이 동반하여 파룬궁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러 북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십여 명의 경찰이 집안으로 쳐들어갈 때도 아왕이 가장 앞장서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파룬궁 수련생 집에 있는 파룬궁 서

적을 몽땅 약탈하고 또 아위의 어머니를 포함한 11명 파룬궁 수련생을 모두 구치소로 납치하여 불법으로 감금했다. 이 파룬궁 수련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경에 가려 했으나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모두 박해를 받았다.

아상의 죽음

아상은 고발로 공을 세워 얼마 후 “소원대로” 파출소장 되었다. 나중에 그는 외지 파출소에 전근하였는데 파룬궁 수련생 박해에 더 힘을 아끼지 않으며 계속 승진하려 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진실을 말해도 그는 듣지 않았다.

소장이 된 후 아상은 소위 돈 버는 비결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호황은 길지 않았다. 어느 한 번 운전 중에 아상은 큰 화물차와 부딪혔는데 죽음은 처참했고 젊은 나이에 처자와 백발 부모를 남기고 갔다.

이는 사람은 모두 아상은 파룬궁을 박해하여 악보를 당했다고 말했다.

진실을 알자 아왕의 뇌출혈 원치

그때 아왕은 아상이 소장이 된 것을 보고 그도 계속 힘을 들여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2002년, 아왕은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마을의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하러 갔는데 그의 아래층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해 그들을 세뇌반에 보내는 도중에 쉴 새 없이 파룬궁 수련

세 명의 젊은 경찰의 같지 않은 운명

한 작은 도시 파출소의 납치 행위는 세 명의 젊은 경찰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밀고하다

아위(阿宇)는 고향 마을 파출소의 젊은 경찰인데 아위의 어머니는 파룬궁 수련생이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아위도 마음이 착하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궁을 위해 북경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갔다——‘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것은 틀림없으며 파룬따파는 좋은 것이다.

2000년의 어느 날, 아위의 어머니는 몇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함께 북경에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했다. 아위는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어머니의 다짐은 확고했다.

이 때문에 아위는 매우 걱정되었다. 아위는 어머니와 어머니 곁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정부에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모두 법을 어겼거니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룬궁에서 혜택을 입은 어머니와 연공 하는 친구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북경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므로 비난

할 수 없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경찰 계통에서 일하면서 아위는 사악한 중공이 어떤 짓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그는 어머니와 아들 파룬 궁 수련생들이 중공에 박해를 당할까 봐 걱정했다.

당시 아위 그리고 아샹, 아왕 세 젊은이는 일반 경찰로서 같은 파출소에 근무했다. 아위는 아샹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기에 아위가 무슨 고민이 있으면 아샹한 태 털어놓는다.

이날 착한 아위는 친한 친구 아샹한 데 그의 어머니와 일부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궁 수련하는 아주머니 집에서 북경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는 말할 수가 없어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매우 괴롭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가 착해졌다고 말한다. 그렇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야 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이기려고 애 쓰지 않는다.

촌 서기는 “혜진이는 우리 마을의 아낙네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다. 파룬궁이 그녀를 좋게 바꿨으니 파룬궁은 정말 보통의 공이 아니네요.” 라고 말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의 우두머리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로 새빨간 거짓말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 파출소 경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에 와서 파룬궁 수련생을 교란했다.

어느 날, 짜증이 난 촌 서기는 파출소 소장에게 말했다. “파룬궁이 어째서? 파룬궁이 우리 마을에 죽어가는 사람마저 살렸네. 당신은 할일이 없는가 보네? 끝도 없이 파룬궁을 못살게 굴다니!”

그는 마음속에서 공산당이 파룬궁 박해에 반감을 품어 위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아무리 재촉해도 그는 나를 찾아온 적이 없으며, 할 수 있는 한 나를 지켜주었다.

현재 촌 서기는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하였으며 그와 아내는 모두 70이 넘는 노인이어서 몸이 아프기 마련이다. 나는 늘 두 분한테 분부했다 “‘파룬따파하오, 쩌란런하오’를 잊지 말아요.” 2년 전에 노부부가 도시로 이사 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모두 건강하여 만년의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



기이한 책



《전법륜》은 파룬궁 주요 저작이다. 《전법륜》책 이름은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1995년 1월 《전법륜》이 출판된 후, 바로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1억 명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다. 1996년, 《전법륜》은 《북경일보》 등 신문에서

‘연간 10대 베스트셀러’ 중의 하나로 선정 받았다. 1999년 7월 이후 파룬궁은 중국에서 중공의 온갖 박해와 모독을 당했다. 하지만 《전법륜》이 책은 오히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공개 발행되고 있다. 40여 개 언어로 된 버전은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책이다.

《전법륜》은 만고기서(萬古奇書)라 불리며 옛적부터 인류가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나 우주와 인생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던 미혹을 풀어냈고, 현대의학이 속수무책이던 수많은 고질병 환자의 질병을 없애버렸으며, 전 세계 억대 사람들의 심신을 이롭게 하고 도덕을 회복시켰다.

아기 탈출기

문/샤오원(肖韵)

2020년 3월, 조카딸은 아기를 데리고 외지에서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세 식구가 오면서 평온하던 우리 세 자매의 삶에 혼란에 빠뜨렸다……

아기는 힘들어 밤낮으로 울었다

조카딸의 귀염둥이 아들은 치치(琪琪)라고 하며 처음 태어났을 때 희고 포동포동해 온 가족이 매우 귀여워했다. 그런데 며칠도 안 되어 치치의 몸에 붉은 뽀루지가 나기 시작했는데 어른도 개의치 않았다. 이후 치치는 점점 더 심해졌고 치치는 심한 가려움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으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7개월 남짓했을 때 붉은 뽀루지가 치치의 온몸을 가득 채우고 작은 생식기에까지 촘촘히 생겼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것이다. 이 뽀루지에서 흐르는 물은 어디로 흐르면 어디가 온통 뽀루지가 생겼다. 그 후 두꺼운 딱지가 생겼다. 딱지가 층층이 벗겨지면 층층이 다시 딱지가 생겼다. 딱지가 두껍게 앉으면 갈라지고 피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데……

온 집안이 밤낮으로 공통에 시달렸다

조카딸 가족이 고향에 온 후, 우리는 치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아이는 마치 얼



▲왼쪽 그림: 치치의 앓을 때 사진
오른쪽 그림: 치치의 회복 후 사진

굴을 망가뜨려 놓은 것처럼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의 허탈한 눈빛을 보며, 가슴 찢어지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어른들의 마음도 쪼들리었다……

치치의 엄마 아빠도 출근을 못 하고 함께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다. 언니도 돌봐 주었는데, 아이의 가슴을 찢는 울음소리가 이웃까지 항의하러 올 정도로 시끄러웠다.

이 붉은 뽀루지는 매우 독했다. 언니, 조카딸, 조카딸 사위는 윤번으로 잠들지 못하는 치치를 껴안고 있기에 그들의 팔에도 아이한테서 흘러나온 핏물에 감염되어 한두 개의 뽀루지가 생겼다. 더는 나빠지진 않았지만, 이 한두 개의 뽀루지는 아이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에 충분했다. 언니는 이 뽀루지가 심하게 간지럽거나 심하게 아픈데 바늘로 살 찌르는 듯한 사무치는 아픔이라고 했다.

의사는 이런 피부 병은 표피가 가렵거나 신경까지 아프므로 그 아프고 가려운 느낌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던 고질병도 사라졌다. 신기한 경험은 그 뿐만 아니었다.

몸을 정화하다

어느 날 아침, 린웨이위가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닦는데, 그 휴지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고, 그 피가 아직도 휴지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뒤돌아본 변기 속은 온통 피로 범벅이었는데 그 순간, 린웨이위는 깨달았다: 그의 가족은 대장암 가족 병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법륜》에서 말한 “신체 정화(淨化)”가 떠올랐다. 아,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의 병 뿌리를 없애버렸구나. 이때부터 그는 화장실에 가도 피 한 방울 없이 몸이 홀가분했다. 린웨이위는 정말 신기함을 느꼈다.

파룬궁이 지혜를 열어준다

린웨이위는 박사 졸업 후, 20년 넘게 의학 교사로 일했고 그 후로 처음부터 시작해 약사가 되었다. 파룬궁 수련이 지혜를 열어주어 혜택을 본 그는 짧은 시간에 약제과 부서의 주관을 해냈고 병원의 모든 약물 관련 의료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말했다. “《전법륜》읽고서 첫째로 나를 지능적으로 성장시키는 속도가 매우 빨랐고 둘째로는 내가 많은 인사 충돌에 대한 포용력으로 아주 큰 도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약학 박사 린웨이위와 아내, 딸 린스웨이가 대만에서 진행한 7.20 반박해 큰 시위행진에 참가했다.

줄곧 인생의 사업에서 순조롭게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차분히 불공평함을 대하다

린웨이위는 감정관리가 잘 안 되는 주관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동료들은 주관의 업무 스타일을 견디지 못해 잇달아 떠났지만, 린웨이위는 《전법륜》에서 가르친 ‘진선인’의 원칙으로 자기를 요구하며 차분히 불공평함을 대하며 아울러 퇴직한 동료가 남긴 일을 묵묵히 떠맡았다.

린웨이위는 파룬파과는 진정한 과학이며 그는 수련 후에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법의 법리에 따라 수련하여 생활 속의 많은 난제도 쉽게 풀렸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은 인연이 있어 《전법륜》이 책을 접촉한 사람 모두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지하게 읽고 자신에게 기회를 준다면 어쩌면 자신에게 인생의 행복한 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



약학 박사의 선택

1999년 중공은 국내에서 파룬궁에 대한 천지를 뒤덮은 유언비어 날조, 먹칠과 죄를 들쭉운 박해를 실행했다. 동시에 비열한 수단을 써서 헛소문을 해외로 퍼뜨렸다.

2000년 초 대만 약학 박사 린웨이위(林威宇)는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에 속지 않고 운 좋게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린 시절

대만 약학 박사인 린웨이위는 어릴 때부터 심각한 천식을 앓아왔는데, 그의 기억 속에는 지금까지 코가 막힘없이 잘 통한 적이 없다. 심한 천식이 발작하면 응급실로 보내지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응급처치를 받는 등 어린 시절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의 월급의 반을 그의 고질병 치료에 써도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 시절 천식으로 4등급으로 분류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평생 병마에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명에 전기가 생겼는데...

약을 쓰지 않고 치유되다

린웨이위가 대만 가오슝 의학대학 박사

반 1학년 때, 하루는, 학교의 국의사에서 '파룬궁 9일 반'을 꾸리고 매일 저녁 리홍쯔 선생님의 설법 비디오를 방영하였다. 린웨이위는 아홉 번째 날에야 교실에 들어갔는데 동작을 가르치는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잠깐만 배웠다. 생각지도 않게 집에 돌아온 후,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잤다! 그의 코가 완전히 뚫렸기 때문이다.

파룬궁의 병 치료 효과가 이렇게 신기하다니? 린웨이위는 매우 놀랐다!

다음날, 그는 바로 서점에 가서 《전법륜(轉法輪)》책 한 권을 사서 이틀 밤 시간을 드려 책을 다 보고 나서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쯔 사부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선택

《전법륜》을 다 읽은 후, 린웨이위는 파룬궁에 대해 참신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는 늘 친구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접한 것은 박사반에 다닐 때 이므로 마침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가장 강할 때여서 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교차 비교를 하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나는 보자마자 분명히 하였다. 2000년 초,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 네댓 달이 되었는데 당시 하늘 땅을 뒤엎었던 가짜 뉴스가 해외로 퍼져 나갔지만 나에게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신기함을 믿었다.

《전법륜》을 읽은 후, 20여 년간 린웨이위를 따라다니던 심한 천식이 약을 쓰지 않고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

크고 작은 병원 숙수무책

조카딸 시택에서 사람을 보내 다시 아이를 유명한 병원으로 보냈다. 의사는 보자마자 숙수무책이었고 또 위험과 책임을 질까 봐 아이에게 입원 치료를 할 엄두도 못냈다.

얼마 후, 치치의 아빠는 또 한 의사로부터 아이에게 마시는 약과 찌질하는 약을 사왔다. 약을 바른 지 이틀이 지나자 오히려 아이의 몸에 난 뽀루지가 더 심하게 퍼져 노란 물이 더 많이 흐르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겨 더는 사용할 수 없었다.

온 가족은 매번 희망을 품고 병원과 진료소를 찾았으나 매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온 가족이 다 초췌해졌다.

파룬따파가 기적을 나타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별수를 다 썼다. 어찌할 수 없으니 치치의 아빠는 치치 엄마가 아이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녹음 방송을 들려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원래 그는 파룬따파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에 의혹과 저축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하여 치치의 엄마는 매일 파룬궁 사부

님의 설법 녹음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시《홍음(洪吟)》을 읊으며 한 수 한 수씩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치치가 계속 울며 난리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치치 엄마는 《홍음》의 시사를 큰소리로 외웠는데 신기하게도 치치의 청얼거림은 점점 멈추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치치 아빠는 비록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지만, 《홍음》중의 시사를 읊기 시작했다. 아이가 울 때면 그는 우는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파룬궁 사부님의 시사를 외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는 하루하루 나아졌다. 그렇게 아이가 11개월까지 자랐을 때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말끔히 나았고 흉터 하나 남지 않았다!

아이의 실제 모습이 드러났는데 하얗고 포동포동하며 피부가 반들반들했다. 현재 치치는 매우 건강한 아이이며 총명하고 영리하다.

병원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고 아이의 그렇게 심한 피부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으니 사실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정말 인간 기적이다!

당신은 아시나요?

1998년 북경, 우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계 전문가들이 35000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5차례 의학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에서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은 98%를 달한다고 나타났다. 지금까지 파룬따파는 100여 개 나라에 널리 전해졌으며 수련하는 사람이 억에 달한다.

병어리 사촌형의 특별한 신언

문 / 샤오취안(晓娟)

나는 간호사이다. 나의 큰이모 가족은 가난한 농촌에 살고 있다. 큰이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올해 60살인 그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할 줄 모른다. 나는 큰이모에게 “그가 이전에 엄마를 불러 본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 큰이모는 “부른 적이 있어요. 그는 한 살 때 뇌막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어린이의 병을 치료할 줄 아는 할머니를 찾아 그의 병을 보였고, 할머니는 그의 귀에 젠티안바 이올렛 같은 약물을 떨어뜨리고, 발에 약을 발랐어요. 그 이후 그는 농아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사촌 형은 농아에다 어리숙해서 매일 밥을 먹고는 산책하러 나갔다. 누구네 집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가서 도와주었으며, 남이 쓰지 않겠다고 쫓아내도 그는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내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해도 아무런 보답도 얻으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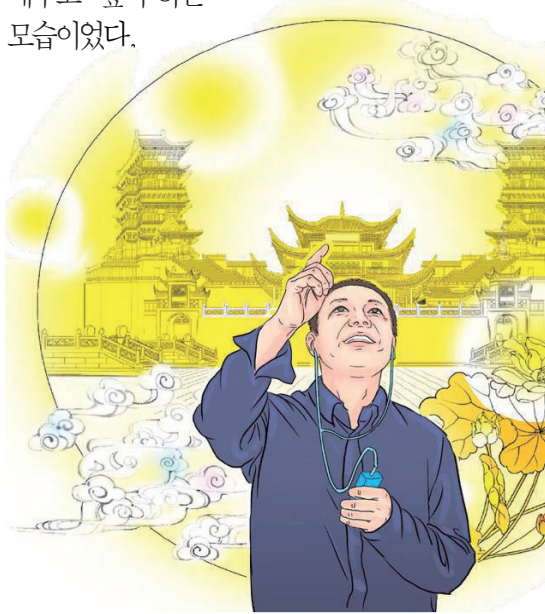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에 근처 마을 사람들은 물론 친척들도 그를 ‘바보’ 라고 불렀고, 나도 그를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덩달아 ‘바보’ 라고 불렀다. 큰이모가 ‘병어리’ 는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초, 큰이모는 나에게 그녀를 도

와 집에서 기르는 닭과 오리에게 먹이 주고, 집을 지켜달라했고, 그녀는 ‘병어리’ 를 데리고 진찰을 받으러 가려 했다. 평소에도 나는 매우 다망하지만, 나는 큰이모와 ‘병어리’ 가 붙잡혀서 도와주러 갔다.

저녁 식사 후, 큰이모의 손가락이 자주 경련을 일으켜서 내가 큰이모의 손을 만져보니 두 손이 모두 차갑지만, 왼손은 오른손보다 현저히 차가웠는데 왼쪽 손목까지 차가웠다. 나는 “큰이모, 나와 같이 파룬궁을 배워 보자요.” 라고 했더니 큰이모가 동의했다.

연공을 시작하자부터 큰이모의 손가락이 경련을 멈추었다. 잠시 후 큰이모가 왼손에서 찬바람이 뿜어나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큰이모는 왼쪽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뿜어나온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의 팔에 병이 있으니 이것은 밖으로 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내가 ‘병어리’ 를 보았는데 ‘병어리’ 는 우리 둘이 연공 하는 모습을 낮을 놓고 보고 있는 것이 꼭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다.



명혜망 1999년 7월 19일 보도, 무장 경찰 본부는 지난 주말(16일) 북경에 있는 민여명의 무장 경찰에 1급 전시 대비 태세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파룬궁이 7월 22일과 7월 말에 두 차례 모임이 있다는 거짓말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사용 무기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당시 중국 경내는 7월 20일 새벽에 우선 전국적으로 동시에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명혜망 1999년 7월 22일 보도, 북경 시내에서 또 파룬궁 상방 수련생에 대한 새로운 대공포 작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북경 외곽에는 여전히 수십만 파룬궁 수련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각지에서부터 북경에 상황을 반영하러 가기를 기다리며 선한 마음으로 상황을 정부에 알리고자 했다.

그해 7월 23일 명혜망 보도, 당시 하북에서 북경으로 상황을 반영하러 갔다가 붙잡힌 파룬궁 수련생은 만 명에 가깝다. 먼저 북경 풍대 경기장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랑방 농업 과학기술원으로 옮겨졌다. 소식을 발표할 때는 이미 이틀 동안 억류되어 물과 밥이 다 끊겨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보정 등 다른 지역에서 압류된 파룬궁 수련생은 이미 십여만 명에 이르렀다.

프랑스 국제방송은 7월 25일 멀리 미국에 있는 리홍쯔 선생을 국제전화로 인터뷰했다. 기자는 중국 정부가 현재 파룬궁에

◀그림1~그림5: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20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과 정의 인사들이 모두 집회를 열고 파룬궁 박해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대한 탄압 사건에 리 선생님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리 선생은 현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두 번째 ‘64’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리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또 체자들에게 어떤 타격과 제압을 당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였다. 인터뷰는 15분 동안 진행됐다.

‘진선인’ 은 진리이며 ‘진선인’ 은 죄가 없다. 이 점은 이지적이고 선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2000년 2월 11일 명혜망은 문장을 발표하고 “진리에 대한 탄압은 처음부터 실패임을 응시했다.” 라고 제시했다.

또 7월을 만났다. 22년이 지난 지금, 파룬궁은 압박에 좌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되어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을 띤 선량한 사람들에게 심신을 이롭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끈질기게 진리를 실천하고 박해를 반대하며 세인들에게 ‘진선인’ 의 힘을 실증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더욱 많은 세인이 중공의 거짓, 사악, 폭행의 본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중공 자체도 진실이 더욱 전파됨에 따라 수시로 무너질 수 있는 빈 껍데기가 되었다. 중공의 멸망은 하늘의 뜻이지만, 그것의 멸망은 누가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자멸하는 것이다——수련자를 박해하고 ‘진선인’ 을 가해하는 중에 자멸하고 있다.

정사 대전에서 진리의 편에 선 생명은 영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격변이 임박한 시점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福

7.20 또 7월을 만나다

1999년 7월 20일~2021년 7월 20일



나는 ‘병어리’에게 와서 연공을 배우라고 불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5조 공법을 ‘병어리’는 아주 빠르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단숨에 동공을 한 시간 넘게 했으며 모든 동작이 거의 맞았다.

나는 매우 곤혹스럽게 이모에게 물었다. “그의 연공 동작을 보면 서투르지 않아요?!” 큰이모는 “마당의 옥수수 바구니와 그 손수레는 모두 병어리가 직접 만든 거다” 라고 말했다.

그 손수레는 작은 마차처럼 커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손으로 만든 것 같지 않았다. 큰이모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차가 ‘병어리’가 만들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큰이모는 나에게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병어리’에게 들려주라고 하였고, 나는 MP3의 이어폰을 가장 높은 음량에 조정해 놓고 그의 귀에 꽂아 주었다. 사부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병어리’의 안색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어나서 손으로 하늘을 몇 번 가리켰다. “맞아. 이게 천법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는 다시 앉아서 두 팔꿈치를 책상에 얹고 이 동작을 두 번 반복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알아차리고 분명히 말했다. “그래요, 사부님께서 설법하실 때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때 이미 한밤중이 되어 나는 그에게 구들에 누워 자라고 했다. 눕자마자 나는 그가 쉴 새 없이 규칙적으로 입을 아래위로 벌리며 소리를 내 보려하지만 낼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손으로 목을 주무르고 목 양



쪽을 비비었다. 네다섯 번 그러는데 “엄마”라는 입 모양이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30분 넘게 반복하던 그는 갑자기 “엄마, 엄마, 엄마...”라고 소리쳤다. 나는 놀라 멍해졌고, 너무 신기했다. 나의 심장, 신체의 모든 세포가 충격을 받았다! 60년 된 병어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큰이모는 감격했다. “내가 너의 엄마다, 춘이야, 춘이야, 내가 너의 엄마다!” 춘이는 ‘병어리’의 애명이다.

눈물로 범벅이 된 나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병어리도 내 모습을 흉내 내며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는 웃었는데 수십 년 동안 나는 처음으로 그가 정상인처럼 웃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병원의 간호사로서 나는 파룬궁이 창조한 의학적 기적의 증인이다!

말기 혈액암 환자 새 생명을 얻다

문/류평(刘萍, 산둥 파룬궁 수련생)



올해 1월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조카딸 매화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울면서 그녀의 남편 다평(大鹏)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이미 말기여서 위독하다고 말했다……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얼른 평정심을 찾고, 슬퍼 마라, 다평이 어찌면 아직 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매화에게 “지금부터 너와 다평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찢싼런하오’라고 외워야 하며 이것은 영험한 모약이다. 작년 우한 폐렴이 터진 뒤 진상을 알게 된 사람은 모두 파룬궁의 신기함을 증명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찢싼런하오’라고 읽고 모두 병이 나왔다. 지금 너와 다평은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찢싼런하오’라고 외우면 그는 나아질 것이다. 성심껏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믿으면 병이 사라지고 재난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매화는 그러겠다고 했다.

이틀 후, 매화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흥분해서 내게 말했다. 화학 실험을 거친후 다평은 온 몸의 지표가 올

라가서,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일가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매화는 또 다평이 병에 걸린 경과를 알려주었다.

석 달 전, 다평은 갑자기 몸이 불편해졌다. 그는 아직 50세도 안 된 데다 평소 건강이 매우 좋았기에 별일 아니라고 여기며 약 먹고 침 한번 맞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서의가 다 보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심해졌으며 밥을 먹을 수도 없어 빠르게 악화되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부탁해서야 겨우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아주 심각했다. 가족들은 위독 통지서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뱃속에 림프샘종이 가득하고 허벅지 뿌리 부분에도 생겨 이미 혈액암 말기라고 했다! 의사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으며 화학요법 치료를 하면 병세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정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니 가족들에게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하늘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다평은 내키지는 않



대만



영국

파룬따파 홍전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리홍쯔 선생이 1992년 5월에 전해 나온 불가 상승(上乘)의 수련 대법이며, ‘진, 선, 인(真, 善, 忍)’을 근본 지도로하며, 5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다 파룬따파는 수련자에게 ‘진, 선, 인(真, 善, 忍)’의 표준에 따라 도덕 수준을 승화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사람을 성실하고 선량하고 너그럽고 평화롭게 변화시킨다.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한다. 1998년, 북경, 우한, 대련 및 광둥성의 의학 전문가들이 5번의 의학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파룬공의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율은 98%로 나타났다.

사회에 유익하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초스를 비롯한 일부 인민대표대회 정년 퇴직 노간부들이 1998년에 파룬공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서 “파룬공은 나라에든 백성에게든 백가지 이로울뿐 한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중앙정 치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파룬따파 홍전 세계 파룬따파는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져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리홍쯔 선생과 파룬따파가 인류 심신 건강에 대한 결출한 공헌으로 여러 나라 정부의 표창, 지지 안과 서한 5,000여 건을 받았다.



프랑스



한국



미국

지만, 화학요법으로 치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평의 직장은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그는 진즉 퇴직해서 실업자였다.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했다. 그래서 다평은 화학요법을 받게 됐다. 의사의 말처럼 화학요법 후, 여러 지표가 더 나빠져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다.

이때 다평과 온 가족은 매우 절망했다. 매화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날 밤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다.

나는 매화하고 ‘파룬따파하오, 쩌쨌런하오’를 계속 꾸준히 외우라고 분부했다. 그녀는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했다.

며칠 뒤, 매화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이모, 다평이 신체검사서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는 나왔어요!” 나는 기뻐서 두 손을 합장하였고, 파룬공을 수련하지 않는 남편이 감탄했다: “신기하네! 기적이다!”

매화와 다평은 병원에서 평온하게 설을

보냈다. 설이 지나자 의사는 다평에게 다시 한번 각종 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검사 결과 그는 이미 다 나왔고 퇴원할 수 있었다.

다평은 농촌에서 자랐다. 설 이후 다평은 집안의 친척들에게 그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다 나왔으며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살도 찼다. 그는 가족들에게 파룬따파가 그를 구했으며 ‘파룬따파하오, 쩌쨌런하오’를 외운 후 신기하게도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고향의 친지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다평이 정말 좋아졌는지 보고 싶어했다. 오면 전 가족이 한 차에 빼곡히 앉아 왔다. 친지들은 눈앞에 있는 건강한 다평의 모습을 보고는 안심했다. 일가족이 설을 쇠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함께 모여 밥을 먹었다.

내가 다평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진실한 이야기를 쓴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 진상을 알기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병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 파룬따파에서 구원받기 바란다.



‘구자진언’ 왜 사악을 물리치고 역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쩌쨌런하오’ 이 ‘구자진언’을 읽으면 정의를 수호하고 사악을 제거하여 위험에서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구자진언’을 진심으로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역병이 치료하지 않고 나았고, 어떤 사람은 암종에 가까웠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았다.

구결을 읽으면 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가? 사실 원리는 복잡하지 않다. 파룬공 사부님은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이다.”라고 밝혔다. 덴마크에서 세포 생물 연구를 하는 올슨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선한 일념이 만들어내는 미시적 물질은 바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밝고 따뜻하며 사심이 없는 특성이 있다. 환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쨌런하오’ 이 구자진언을 읽을 때, 바로 온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강하고 극히 미시적인 에너지가 읽는 사람의 세포에 관통되어, 순식간에 바이러스를 죽인다.

우한 이야기: 구자진언이 제수씨 가족을 구했다

문 / 위란(玉兰, 호북 파룬궁 수련생)

전화에서 우한에 사는 시동생이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형님, 어서 빨리 그 아홉 가지를 가져다주세요. 빨리! 아, 그……그……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홉 가지를요!” 남편은 그제야 알아듣고 “아, 네가 말하는 것이 '구자진언'이냐?” 라고 하자 시동생이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빨리 가져다주세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남동생이 전화로 '구자진언' 을 요구하다

2020년 정월 초이틀 정오에 내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급히 나에게 우한에 사는 동생이 전화가 왔다고 했다.

남동생은 “형님! 어서 빨리 지난번에 우한에 왔을 때 말한 그 아홉 가지 물건을 저에게 가져다주세요!” 라고 말했다.

남편이 “어떤 아홉 가지 물건이냐?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의 형수가 돌아오면 물어보겠다.” 고 말했다.

남동생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그……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홉 가지 물건을 말해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 ‘구자진언’ 을 말하는거냐?” 라고 말했다.

남동생은 “맞아요! 맞아요! 빨리 가져다주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가져간단 말이나? 이렇게 먼 곳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곳은 설날 29일에 도시를 봉쇄했다.” 고 말했다.

남동생은 듣고서 말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물었다. “너희들 웬일이나?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 우한폐렴에 걸린 거냐?!”

남동생은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잘 있어요……” 라며 위로했다.

남편은 좀 생각하고서 말했다. “위채로 보내 줍시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건박합니다.” 이리하여 위채로 ‘파룬파파하오, 쩌쨌런하오’ 이 구자진언을 남동생에게 보내주었다.



학생 몇 명이 죽었고 내 손녀는 갈비뼈 하나가 부러졌어요. 며느리가 손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봐달라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 점쟁이는 며느리에게 교통사고로 죽을 운명 이던 손녀가 그녀 가방 안의 작은 사각형이 그녀를 구했다고 했어요. 나는 바로 며느리한테 그것은 내가 파룬궁 호신부 하나를 손녀의 가방 안에 넣었는데 호신부가 손녀를 구했네.” 수진의 온 가족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기뻐다. 몇 년 후, 나는 수진이가 일하는 학교에 가서 그녀를 만나자

그녀는 내게 호신부 8 개를 달라고 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에서 탈퇴)를 해 줬고, 그날 그녀 가족 나머지 6 명도 모두 ‘삼퇴’ 를 해주었다.

수진이네 온 가족이 ‘삼퇴’ 를 해서 복을 받은 사례를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에 지금 내가 그 학교 선생님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며 “빨리 ‘삼퇴’ 하세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선생님들은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삼퇴?' ——자신을 위하고 또한 하늘을 위하여

‘삼퇴’란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약칭 ‘삼퇴’) 탈퇴를 말한다.

중공의 죄악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이 70년 넘게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8,000여 만의 중국 사람을 박해해 죽였으며, 20여 년 동안 ‘진선인’ 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중국인들은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을 믿는데 지금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는 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업보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공의 소선대, 공청단, 공산당에 가입할 때 모두 오른손을 들고 그 당을 위해 “평생을 분투하겠다” 고 맹세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이 사악한 당에 맡기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오른손을 들고 독한 서약을 하는 ‘선서 의식’ 은 공산당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해친 이 악당의 부장품이 되고 싶은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공개 성명으로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독한 서약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연루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늘이 그것을 청산하고 벌을 내릴 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2021년 7월까지 해외 대기원 탈당 사이트에서 ‘삼퇴’ 성명을 한 수지는 이미 3 억 8000 만 명을 넘어섰다. 진심으로 ‘삼퇴’ 성명을 한다면 실명, 가명, 애명도 똑같이 효과가 있다. 조건부 인터넷 봉쇄를 뚫고 해외 중국인 최대 매체인 《대기원시보(大纪元时报)》의 탈당 사이트에 공개 성명으로 삼퇴하고 (돌과 방법은 16 페이지 왼쪽 하단 참조), 조건이 안되면 ‘삼퇴’ 성명을 주변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주어도 되며 이후에 조건이 되면 다시 인터넷에 접속해서 발표해도 된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 되므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고 신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

동료 온 가족 '삼퇴'하고 복받았다

문/춘화(春華, 사천 파룬궁 수련생)



어느 날 길거리에서 나는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동료 수진이를 만나 인사를 건넸다. 근심 가득한 그녀가 나를 보더니 나를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모두 폐암에 걸려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살기 싫다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이 한 학교의 당 지부 서기였고, 그녀의 아들도 한 직장의 간부였다.

나에게 당신을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데, 내 말을 들어줄래요? 그녀는 “나는 백 퍼센트 당신의 말을 듣겠어요.” 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말기 간암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아주 빨리 회복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그들 두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과거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 가입했던 것을 탈퇴하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를 읽으라고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마치고는

호신부 두 개를 그녀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삼퇴’ 한 후에 이 파룬궁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있게 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이 진심인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반드시 그들 부자를 ‘삼퇴’ 시키겠다고 했다. 헤어질 때 그녀는 또 나에게 호신부 하나를 더 달라고 했다.

한 달 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달려와 나를 꼭 안아주며 감격에 겨워 말했다 “어떻게 감사드릴까요? 그들 부자가 다 나왔어요!”

나도 반가워 말했다. “당신은 마땅히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파룬궁 사부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녀는 줄곧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호신부 3개 중에 하나를 손녀의 책가방에 넣어 놓았어요. 며칠 안 되어 손녀의 학교에서 봄놀이를 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남편은 남동생과의 대화를 나에게 되풀이하고서 말했다. “당신이 보기엔 그들이 문제가(폐렴에 감염)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들 중 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조금해할 수 있나요?”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형님이 걱정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효금(제수)이 정월 초 이튿날 아침 심하게 아팠는데 폐렴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해서 ‘구자진언’ 을 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온 가족은 밤낮으로 모두 ‘구자진언’ 을 읽고 있어요! 파룬따파 사부님께 보호를 빌면서 우리는 대법 사부님께 참회했어요: 예전에는 진실을 모르고 형님들 사부님에게, 형님들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당신들의 사부님을 믿으므로 우리는 벌일 없을 겁니다!”

20여 일이 지나자 동생과 조카가 반갑게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여섯 식구는 모두 무사합니다. 당신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파룬궁의 진실과 구자진언을 알려준 당신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끝장입니다!”

여동생 일가

2020년 설날 아침, 나는 여동생과 두 조카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다.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있는 곳(우한)은 현재 역병 상황이 가장 심각하니 온 가족이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쩌싼런하오’ 라고 읽으면 평안은 보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여동생은 듣자마자 하하 웃으며 얼렁뚱땅 넘어갔다.

우한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구자진언(九字真言)을 꼭 성심껏 읽으며 목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는 여동생이 별말 없이 낮은 소리로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나는 갑자기 꿈에서 여동생이 나타났다, 깨어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들 파룬따파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매우 의아했다. 이전에 여동생은 파룬궁을 매우 배척하기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반박하면서 그녀는 ‘현대과학’ 만 믿는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너 웬일이냐?” 라고 물었다. 여동생은 “언니, 사실은 지난번에 언니

가 나한테 전화 했을 때 나는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상황은 폐렴 증상과 똑 같았으며 정말 죽을 지경이어서 휴대전화를 들 기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구자진언’ 을 읽으라고 알려줄 때 고맙다는 말만 하고 더 말할 힘이 없었어요.”

나는 물었다. “아니! 너는 어떻게 나왔어?” 그녀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나요? 나는 두 딸과 같이 언니가 말한 대로 밤낮 ‘파룬파파하오, 쩐쨌런하오’ 라고 읽었더니 이렇게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면서 이렇게 다 나 있었어요! 정말 당신들 파룬파파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관심 가져줘서 고맙기도 하고…… 둘째 언니 오빠도 나와 같은 상황이 된 거 모르시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들도 온 가족이 모두 ‘파룬파파하오! 쩐쨌런하오!’ 라고 쉴 새 없이 읽었어요. 이제 그도 다 나왔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파룬파파가 우리 온 가족을 구해주었다!



담을 넘어 진실을 보자

컴퓨터 버전 <https://git.io/fgp88>

안타크 버전 <https://git.io/fgm88>

따스한 도움말:

IE, Edge, Chrome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브라우저로 사이트를 열어 주세요.



인터넷 검색번호 바로 보기 자유문 컴퓨터 버전

외조카 연탄차 추돌에 무사하다

문/장원(张雯 안휘 파룬궁 수련생)

우리 집은 네 자매와 남동생 하나이며 우리 집 많은 친인은 모두 파룬파파가 좋다는 진실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퇴’ (중공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였기에 그들은 복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잇아기는 큰 재난을 피하게 됐다.

제 동생은 작은 운수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회사 내의 직원들은 모두 파룬파파를 믿었으므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실을 알고 나서 즉각 가입했던 당원, 단원, 소선대 조직에서의 탈퇴 성명을 하겠다고 했다.

나는 ‘파룬파파하오, 쩐쨌런하오’ 라고 적혀 있는 구자진언 호신부를 남동생에게 주면서 이 아홉 글자를 마음속에 기억하면 전화 위복이 되어 재난에서 상서롭게 된다고 알려

주었다. 남동생은 진상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서류 가방에 넣고 외출해도 갖고 다녔다. 그는 또 그의 회사의 모든 차 조종실에 구자진언 호신부를 두었다.

둘째 여동생의 아들, 즉 내 외조카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딴 후, 이따금 나의 남동생(그의 외삼촌)의 회사를 도와 차를 몰아 물자를 운반해 주었다.

외조카도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매우 지지했다. 내가 그에게 ‘삼퇴’ 하라고 하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른손을 들고 “나는 탈퇴할래요! 소선대에서 탈퇴할래요!” 라고 했으며 또 몇 번 당부했다. “나를 도와 탈퇴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 후에 또 나에게 “나를 도와 탈퇴했

나요?” 라고 물었다. 그 역시 파룬궁 진상 호신부를 날마다 몸에 지니고 있었다.

2015년 여름 어느 날, 남동생은 트럭을 몰던 외조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차가 석탄을 운반하는 트럭에 추돌 되어 부서졌다고 했다. 남동생은 회사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대형 트럭이 추돌한 아찔한 현장을 목격했다.

원래 그날 외조카는 화물차를 몰고 짐을 실으러 가는 도중에 마침 신호등 이쪽 편의 경계선 안에서 녹색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굉장한 울림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화물차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고 그리고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맞은편 신호등 가로대 아래 도로에 떨어졌다.

다행히 조카는 다치지 않았고, 아프지 않았으며, 머릿도 맑았다. 그가 차에서 내려 보니 정말 위험했다! 뒤쪽의 차체 절반이 부딪혀서 완전히 부서져 차가 전부 망가졌다.

조카가 몰던 화물차는 부딪혀서 날아올라 땅에 떨어진 거리는 무려 30여 미터의 거리였는데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고, 차체가 땅에 떨어질 때의 진동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외조카는 상처가 없을 리 없지만, 그는 무사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외조카는 정말 운이 좋으며 이것은 부처님이 보호해 준 것이라고 여겼다.

우리 온 가족 모두 알고 있다. 이것은 외조카가 파룬궁 진실을 알고 중공의 부속 조직에서 탈퇴하였기에 복을 받아 목숨을 잇아기는 재난이 사라진 것이다.

